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

-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홍덕구*

1. 들어가며
2. 여성 과학자의 실패와 자기완성 :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들
3. 밈(meme)으로서의 과학자 : 심너울 소설의 과학자 재현
4. 소외와 자기포식 : 정보라 소설의 과학자 재현
5.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SF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방식과 구현되는 양상을 다루는 장르이다. 과학연구원과 과학연구기관은 한국 현대 SF가 드물지 않게 다루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의 SF 소설에 나타난 과학자 표상에 대해 살피고, 이를 통해 한국 현대 SF가 과학자의 신화적 표상과 과학의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해체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공계 출신 작가로 잘 알려진 김초엽의 소설에는 여성 과학자가 자주 등장한다. 김초엽 소설의 여성 과학자들은 사건의 원인인 동시에 솔루션이며, 과학을 통한 자기완성과 연대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주체이기도 하다.

한편 심너울 소설의 과학연구/과학자는 본의 아니게 자본과 권력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대서사의 장으로 휩쓸려 들어가며, 그 과정에서 의도하

* POSTECH 소통과 공론 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지 않은 거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심너울은 이처럼 항상 불안한(anxiety) 과학자의 존재 양상을 밈(meme)화 시켜 그린다.

정보라의 경우 마르크스가 제기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라는 문제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지식노동의 장인 과학(자)의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냉소적으로 재현한다.

(주제어: SF, 과학자 표상,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이 국가, 자본, 기업, 학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시대에 과학자의 존재론이 어떻게 변화·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의 SF 소설에서 과학자, 과학연구, 연구기관이 표상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의 과학자 표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서사 상에서 과학자 캐릭터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사건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세 작가의 과학자 재현 방식이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세 작가의 시도는 과학자의 신화적 표상과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해체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재현의 전략은 전혀 다르다. 본론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는 과학을 통한 해방과 자기완성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에 찬 주체로 표상된다. 반면 심너울 소설의 과학자들에게선 신념이나 자기완성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본-국가-기업의 카르텔에 종속된 부품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연구·발명

과 같은 과학적 수행을 통해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대단히 거대하다. 한편 정보라 소설의 과학자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존재로 표상된다.

과학자가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물 정도로, 과학자는 SF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형이다. SF의 가장 중요한 기원 중 하나로 간주되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1818)의 제목 ‘프랑켄슈타인’은 작중에 등장하는 괴물(작중에서는 ‘크리처’)의 명칭으로 빈번하게 오해되지만, 실은 그 괴물을 창조해낸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이다. 빅터는 대학에서 과학을 연구한 인물로, 자신의 과학 지식을 이용해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빅터의 캐릭터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 자신조차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크리처에 의해 아내와 절친한 친구를 잃고 북극까지 추적할 정도로 증오하면서도 끝내 일말의 동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입체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장르로서의 현대 SF를 개척한 휴고 건즈백의 소설 『27세기의 발명왕』(1911)의 주인공 ‘달프 124C41+’ 또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다. 이처럼 SF는 그 시원부터 과학자의 연구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들, 즉 과학의 사제(司祭)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과학(자)의 존재론과 존재 방식은 크게 변화해 왔다. 『프랑켄슈타인』의 빅터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이성과 과학적 합리성, 그리고 재력을 무기로 세계를 변화시키려 했던 고독한 선각자였지만,¹⁾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국가, 자본, 기업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일

1) 샌드라 하딩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상상력을 통해 과학자가 아니라 그 과학자가 의도하지 않고 창조해낸 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뀐으로써, 괴물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매일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번식되었는지는 어둠 속으

하는 피고용자이자 협업자들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학이라는 학제(學制), 그리고 연구/연구자라는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는 지식을 생산하고, 전승과 교육을 통해 과학계의 재생산 장치로 기능하며, 기업(자본) 및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통치 이데올로기 및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고도로 전문화/분업화되어 있으며 막대한 연구비와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현대 과학연구의 속성과도 결부된다. 이제 어느 호젓한 저택의 칩칩한 지하실에서 세상을 뒤집어놓을 연구에 몰두하는 ‘독학자형 과학자’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의 신화적 표상은 여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과학적 발견·발명을 통해 놀라운 업적을 성취하고 이를 통해 천년왕국의 전망을 제시하는 과학자 표상은 한국문학이 과학과 과학자를 주된 재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첫 순간, 예컨대 이광수의 『개척자』(1917)와 같은 작품에서 그 초기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²⁾ ‘씨 없는 수박’으로 잘 알

로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이는 과학의 형태와 과학과 동반자 관계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체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나 제도적 관행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은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나남, 2009, 33쪽.

2) 근대문학 초창기 텍스트에 나타난 선각자로서의 과학자 표상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김주리, 「〈과학소설 비행선〉이 그리는 과학 제국, 제국의 과학-실험실의 미친 과학자들(1)」, 『개신어문연구』 No. 34, 개신어문학회, 2011, 169-196쪽; 김주리,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No. 39, 한국현대문학회, 2013, 41-73쪽; 황종연, 「신 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Vol. 36, 상허학회, 2012, 143-182쪽;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비교한국학』, Vol. 27 No. 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61-89쪽;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Vol. 68, 우리어문학회, 2020, 131-170쪽; 최애순, 「대한제국 말기와 대한제국 말기와 식민지시기 발명·발견 소재 소설의 행보-일본 유학생 집단 지식인의 ‘발명’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 『현대소설연구』 No. 9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87-133쪽.

려진 육종학자 우장춘의 이야기,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대중에게 인식시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와 같은 사례 또한 신화적 과학자 재현의 변주일 것이다.

2000년대 초반, 과학계는 물론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사건’은 과학자 표상에 신화적 아우라가 덧씌워져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과학기술학(STS) 연구자인 홍성욱은 ‘황우석 사건’에 대해 “과학이 종교의 권위를 대체한 세속화 과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의 연구는 장수와 무병의 시대를 여는 준종교적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³⁾라고 분석하였다. 즉, 황우석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광신적 열광은 과학적 발견이나 성취에 대한 찬사라기보다, 그가 줄기세포 복제기술의 ‘효능’이라고 선언하였던 새로운 의료기술을 한국이 선점하는 미래에 대한 도취에 한없이 가까웠다. 최근의 ‘상은 초전도체’ 논란 또한, 개별 과학자들의 얼굴은 가려져 있을지언정, 과학적 발견·발명을 통해 한국이 미래 세계의 기술 패권을 선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반면 부정적 맥락의 과학자 표상들도 있다. 과학적 전문성과 지식, 기술을 악용해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과학자 표상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상에는 현실의 과학계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과 이에 관련된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증첩되어 있다. ‘황우석 사건’에서는 여성 연구원들이 2,000개가 넘는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적, 젠더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수천 명, 최대 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건강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품의

3) 홍성욱,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7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68-69쪽 참조.

독성 평가를 맡은 연구자들이 기업 측에 유리하도록 연구 결과를 조작한 사례 또한 윤리 의식을 상실한 과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와는 별개로, 과학기술 연구자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이공계 대학원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학위 취득 후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며 겪게 되는 부조리와 ‘공밀레’⁴⁾, ‘크런치 모드’⁵⁾ 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존재한다. 대학원생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 밈으로 소비되고 있었으며, 2015년 세상에 알려진 ‘인분교수 사건’이나, 인문학을 전공한 지방대 대학원생(시간강사)의 처지를 자전적으로 다룬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은행나무, 2015)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공계 대학(원)에 한정하더라도 2017년에 발생한 ‘팀블러 폭탄 사건’, 2019년에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폐기물 폭발 사고’ 등의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이공계 대학원생의 삶과 애환은 <사자툰>(네이버 웹툰 베스트도전, 2015~2021),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네이버 웹툰, 2019~2021), <대학원 탈출일지>(네이버 웹툰, 2022년부터 연재 중)와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재현된다.

정리하면, 오늘날 생산·통용되는 과학자 표상에는 과학과 과학자가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와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들, 그리고 그 관계에 투자(project)된 욕망과 권력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SF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장르이므로 현실에서 과학기술이 존재하는 방식과 구현되는 양상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연구와 과학연구기관은 한국 현대 SF가

4) 어린아이를 씻물에 넣어 만들었다는 비사가 전해지는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에서 유래한 온라인 속어로,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의 노동력을 극한의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착취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R&D(연구개발) 풍토를 비꼰 표현이다.

5) IT 업계의 은어로,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회활동 등을 희생하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드물지 않게 다루는 소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현시대의 SF 소설에서 과학자 캐릭터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가. 또한 그러한 재현/표상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는 과학자의 존재론과 관련해 현대 한국 SF가 생산하고 있는 과학(자)적 주체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여성 과학자의 실패와 자기완성 :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들

과학자는 김초엽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형이다.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허블, 2019)에 수록된 7편의 단편 중 5편에 과학기술 전공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서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만을 꼽더라도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인간배아 연구자 릴리 다우드나, <스펙트럼>의 생물학자 희진, <공생가설>의 ‘뇌의 해석 연구소’ 연구원 윤수빈과 한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냉동 수면 연구자 안나, <나의 우주 영웅에 대하여>의 항공우주 연구원이자 우주비행사 최재경이 있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릴리 다우드나는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흉측한 얼룩을 남기는 유전병을 앓았다. 그 때문에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피하며, 자신의 인간배아 디자인 기술로 완벽에 가까운 신인류를 만드는 ‘바이오해커’로 활동한다. 어느 순간, 아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한 릴리는 자신의 클론 배아를 만들어 가장 좋은 유전적 특성들만을 새겨 넣는다. 그런데 어떤 결함이 발생해 그 배아는 릴리와 동일한 유전병을 갖게 된다. 릴리의 선택은 그 배아를 지워버리

는 대신, 다양한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살아 가는 지구 밖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릴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서사가 릴리 사후 몇 세대가 지난 뒤, 지구 밖 마을 주민의 시점에서 “어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⁶⁾라는 질문에 의해 추동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릴리 다우드나는 사건의 원인 이자 결과인 셈이다.

〈스펙트럼〉의 희진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해 설립된 ‘스카이랩의 촉망받는 연구원’⁷⁾이다. 그는 우주 탐사 도중 조난당하고, 이로 인해 지성을 가진 외계 생명체와 조우한다. 흥미로운 것은 희진이 아무런 분석 장비도, 기록 도구도 없이 외계 생명체를 만났다는 점이다. “희진은 학자였다. 알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본래의 업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도구도 없는 이곳에서 희진은 너무나 무력했다……하지만 지금 희진에게 있는 것은 희진의 신체와 감각뿐이었다.”⁸⁾ 즉, 희진은 잘 훈련 받은 과학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순간에 그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상실한다. 그리고 일견 이 소설은 그러한 관계, 즉 과학이라는 인위적 장치가 개입되지 않은 존재와 존재의 순수한 만남을 예찬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과학적 조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분실했기 때문에 희진은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자’로서 ‘루이’로 대표되는 외계 지성체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때의 희진에게는 과학이라는 도구가 없었으므로 ‘루이’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자연

6) 김초엽,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12쪽.

7) 김초엽, 「스펙트럼」, 위의 책, 59~60쪽.

8) 김초엽, 위의 글, 74쪽.

에 대한 관찰'이라는 자연과학의 본질에 한없이 가까운 행위였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만날 때는, 우리는 더는 유약한 이방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도구를 가져갈 것이다. 그들에 관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분석하고 그들의 문자를 분석할 것이다”⁹⁾라는 서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안나는 과거 냉동 수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이다. 그가 개발한 냉동 수면 기술로 인해 인류는 다른 항성계들을 탐험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 곳곳에 개척지를 건설한다. 안나의 가족은 슬렌포니아라는 개척지로 이주했지만 안나는 연구에 몰두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워홀 이동 기술이 개발되고, 슬렌포니아로 가는 항로가 끊기면서 안나는 작중의 ‘현재’ 시점까지 백 년 넘게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되었다. 작품의 말미에서 안나는 지구와 위성 사이를 오가는 작은 셔틀을 타고 슬렌포니아로 떠나고자 한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¹⁰⁾

작중에서 안나의 여행은 대단히 무모한 것으로 서술된다. 더구나 안나가 냉동 수면 기술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슬렌포니아행 우주선을 기다리는 동안 백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안나의 가족들은 아마도 모두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나는 망설이거나 성공 확률을 따지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 것은 너무 오래 지연된 출발을 늦게나마 시도하는 것이다. 우주정거장 관리 회사 직원의 만류에 대해 안나는 인용문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러한 안나의 태도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라기보단 오히려 자기 확

9) 김초엽, 앞의 글, 95쪽.

10)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앞의 책, 182쪽.

신의 힘으로 의지를 관철하는 초인적 주체에 가까워 보인다. 안나가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과학자로서의 경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나는 사건의 원인인 동시에 해결(resolution)이기도 하다. 서사학적 관점에서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원인이자 해결)은 <나의 우주 영웅에 대하여>의 최재경, <캐빈 방정식>의 물리학자 유현화, <지구 끝의 온실>의 식물생태학자 아영 등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김초엽 소설의 이러한 과학자 표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들은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묘사했듯 오직 지식욕에 의해 추동되는 ‘파우스트적 주체’일까? 파우스트가 지식을 극도로 추구한 나머지 악마와 거래를 맺고, 그 대가로 연인의 가족과 연인 그 자신마저 잃은 인물임을 고려하면, 과학자로 존재하고픈 욕망 때문에 가족을 상실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안나는 일견 ‘파우스트적 주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험의 결과로 다른 시간성을 살게 된 <캐빈 방정식>의 유현화나,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다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무서운 식물을 만들어낸 <지구 끝의 온실>의 아영 또한 이처럼 과학을 추구한 대가로 소중한 것을 상실한 과학자 캐릭터들이다.

조애나 러스는 SF를 보통의 문학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SF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글이다”¹¹⁾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SF가 현실, 그리고 가능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정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 재현은 ‘일어나지 않은 일’, 즉 현실의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는 다르지만, 언젠가/어떤 계기에 의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인 셈이다.

11)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옮김, 포도밭출판사, 2020, 55쪽.

김초엽 소설에 등장하는 과학자 캐릭터는 거의 대부분 여성이다. 다시 조애나 리스에 따르면, 테크노필리아와 테크노포비아는 모두 가진 자(남성성)의 태도다. 두 경우 모두 테크놀로지를 ‘권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릴리, <스펙트럼>의 희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안나와 같은 여성 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자기확신적 태도는 결코 테크노필리아적이지 않다. 이들에게선 테크놀로지를 통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지구 끝의 온실>과 같은 작품에서는 과학기술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조차도 기술을 통해 인류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에코모더니즘적 시도가 통제를 벗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기술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김초엽의 (여성) 과학자 표상은 안이 아닌 밖을 지향하며,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관계지향적이다.¹²⁾

김초엽은 여성 과학자들의 도전과 실패, 극복과 자기완성의 서사를 통해 ‘일어나지 않은 과학’의 이야기를 써나간다. 분명한 것은 김초엽 소설이 재현하는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과학계라는 한정된 범주 내에서만 통

12) 다수의 선행연구가 김초엽 소설의 주인공들이 드러내는 소수자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복적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Vol.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77-107쪽; 김은주, 「어떠한 이야기들이 세계들을 만들고, 어떠한 세계들이 이야기들을 만드는가?: 동시대 페미니즘과 SF의 조우로서 김초엽의 「관내분실」」, 『문화과학』 No. 111, 문화과학사, 2022, 117-133쪽; 양윤의·차미령,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비교한국학』 Vol. 30 No. 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97-226쪽; 윤애경, 「한국 SF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자유의지와 젠더 수행성」, 『國際言語文學』 No. 53, 국제언어학회, 2022, 81-106쪽;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 비전과 소수자의 역습-김초엽 SF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No. 6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141-181쪽.

용되는 비 주체(non-subject)가 아니라, 여성주의 서사로서 광범위한 생명력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면에는 지금-여기의 현실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작가 본인의 경험과 견문¹³⁾에 기반한 것이리라 생각된다. 김초엽 소설의 (여성)과학자 재현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여성)과학자의 이야기'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김초엽 소설은 리얼리즘적 고발문학이 아니라 SF로서의 성격을 획득한다. 그리고 과학(자)의 존재론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김초엽 소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하드(hard)'하고 본격적인 SF이기도 하다.

김초엽 소설의 여성 과학자들은 도나 해러웨이가 제시한 '상황적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해러웨이는 '탈체현적인 투명한 시선'이라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과학의 객관성 은유를 거부하는 동시에, 페미니스트 입장론의 '강한 객관성'이 극복하지 못한 '반영성' 은유도 함께 비판하기 위해 '상황적 지식들'과 이에 기반한 '부분적 시각(partial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⁴⁾ 또한 샌드라 하딩은 해러웨이를 참조하여 '무위치(nowhere)'의 관점을 내걸고 있는 전통과학이 사실상 특정한 위치, 남성의 편견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초엽 소설은 현실의 여성 과학자들이 처해 있는

13) 김초엽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화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4) 김애령,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유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 『탈경계인문학』 Vol. 14, No.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1, 8-9쪽.

15) 이현재,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페미니즘의 제언: 강한 객관성과 부분적 연결을 강조하는 비판적 입장론」, 『哲學研究』, No. 138, 철학연구회, 2022, 91쪽.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조건¹⁶⁾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기반하여 여성 과학자를 사건의 원인이자 결과, 즉 서사의 중심이자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일어나지 않은’ ‘부분적 시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SF가 남성 과학자들의 실패와 좌절, 극복과 자기완성의 서사를 반복해 왔다면, 김초엽은 이를 여성 과학자들의 것으로 전유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 과학자들이 표상하는 이성과 합리성, 과학기술의 객관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여성 과학자의 실패와 후회, 자기 의심이라는 정동으로 전환된 후 소통과 연대, 환대와 공생을 지향하는 결말로 향한다. 이는 단순히 과학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과학자라는 구체적 몸을 통해 체현된 ‘부분적 시각’의 형상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조애나 러스가 비판했던, ‘여성 지배’라는 설정을 통해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종류의 SF¹⁷⁾와는 완전히 무관하며, 여성이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권리를 다루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SF에 한층 더 가깝다.

김초엽 소설은 이러한 젠더적 전유를 통해 남성중심적 과학이 생산해 낸 ‘투명한 과학’의 객관성 은유와 그것이 캐릭터로 형상화된 ‘객관적이고 숭고한 남성 과학자’ 표상을 해체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종류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 김초엽 소설의 균형감각이기도 하다. 김초엽 소설의 여성 과학자들은 기존 SF의 남성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고, 실

16)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 한국의 여성 과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권소영, 김난주, 남혜성, 박은경, 박인경, 『나는 대한민국의 여성 과학자입니까?』, 와우라이프, 2018.

17) 조애나 러스, 앞의 책, 106-160쪽 참조.

패를 통해 성장하며, 자기완성에 이르는 길을 강하게 추구한다. 다만 그 완성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지배와 정복, 발명과 성취가 아니라 여성 과학자라는 몸을 통해 체현된 환대와 공생이라는 점에서 기존 SF의 (남성) 과학자 재현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3. 밈(meme)으로서의 과학자 : 심너울 소설의 과학자 재현

김초엽 SF의 과학자 재현에서 배제된 사회적 맥락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자)의 일상’일 것이다. 이는 자기확신적 주체로서의 (여성)과학자를 재현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심너울은 2023년 현재, 한국 SF 씬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작가 중 하나다. 그는 <초광속 통신의 발명>, <SF 클럽의 우리 부회장님>,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의 통섭에 대하여>, <한 터럭만이라도>와 같은 작품들에서 과학연구(자)를 재현하며, 과학과 일상의 접점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심너울의 태도는 유머러스하면서도 동시에 시니컬하다.

소설집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2020)의 제일 앞에 수록된 작품, <초광속 통신의 발명>은 서두에서 이것이 이공계 대학원생의 이야기임을 직설적으로 밝힌다.

“진짜 퇴근하고 싶다.”

어느 가을밤, Z대학교 공학대학에서 전산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K씨는 탄식했다. 그는 연구실에서 탈출하는 순간, 침대 위에서 즐기는 찰나의 편안함, 잠시라도 자기 냄새가 배어 있는 공간에서 폭 쉴 때의 즐거움을

머릿속에 그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찬란한 순간이었다...¹⁸⁾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전산학과 대학원생 K를 지배하는 욕망의 이름은 “퇴근”과 “탈출”이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퇴근한 지 2시간 만에 퇴근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다. 이는 “알고리즘에서부터 병렬 컴퓨팅까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정보 이론까지 온갖 끔찍하고 기괴한 적수와 10년을 맞서 싸운 그의 뇌”가 “뉴런과 글리아 단위로 뒤틀려 있었기” 때문이다. 즉, K는 능력주의와 PBS(Project 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제)가 지배하는 이공계 대학(원) 시스템의 희생자이자 일부이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퇴근하고 싶다는 감정을 통해 정보를 과거로 전송할 수 있다”¹⁹⁾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연구 계획서로 작성해 R&D 예산을 따낸다. K의 연구는 “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즉 정보가 과거로 흐른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초광속 통신의 기본 골자인 ‘Salyojo 프로토콜’”의 기본 원리가 발견된다.

당연하게도 이 짧은 소설은 시니컬한 농담이다. 온갖 과학 용어, ‘업계 은어’를 동원해 현란한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살려줘 프로토콜’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작가는 과학적 원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는 ‘일어나지 않은 일’로서의 SF라기보단, ‘일어나고 있는 일’의 비틀기에 가깝다.

이러한 태도 또는 서사 전략은 심너울 소설 전반에서 두드러진다. “생명 과학 판에 적극적으로 끼어보려는 재벌 집단에 속한 나노 바이오 연구소”²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SF 클럽의 우리 부회장님>에서는 첨단

18) 심너울, 「초광속 통신의 발명」,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아작, 2020, 9쪽.

19) 심너울, 앞의 글, 10쪽.

실험장비인 ‘초임계 추출기’를 이용해 추출한 참기름을 그룹 임원진에게 선물했다가 문제가 되어 좌천된 연구원의 이야기가 전사(前史)로 제시된다. “어디에든 열성으로 나서는 훌륭한 계약직 일꾼”인 정 박사는 “소장이 술자리에서 비밀스레 제시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끼”에 유인되어 “초임계 추출기에다 참깨를 으개 넣어서 참기름 100병을 만들어”²¹⁾ 낸다. 그러나 한 임원이 실험장비의 사적 이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정 박사는 해고되고 소장은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소설의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의 서브플롯으로 기능한다.

서술자인 ‘나’는 정 박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소의 계약직 연구원이다.

어릴 때부터 집구석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처 사람들에게 “애는 하는 짓 보니 영재의 짝이 있다.”는 큰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오해를 딱히 수정할 생각도 없어서 시키는 공부를 했는데 정말 머리가 좋지는 않아서 의대나 치대 진학은 실패하고, 약대나 갈까 생각하면서 화학공학이나 생물학 따위를 전공했는데 그제 생각보다 꽤 적성에 맞아서 어영부영 놀러있었다가 결국 연구소에 계약직으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면서,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다.²²⁾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심너울 소설의 과학연구자들에게선 커다란 사명감이나 확신, 자기완성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반쯤은 (비)자발적으로 과학계로 떠밀려 온 존재들이다. ‘나’는 동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동료 연구원들과 ‘SF 클럽’을 결성하는데 이것이

20) 심너울, 『SF 클럽의 우리 부회장님』, 앞의 책, 16쪽.

21) 심너울, 『SF 클럽의 우리 부회장님』, 앞의 책, 17쪽.

22) 심너울, 위의 글, 19쪽.

오스쿠스 그룹의 실세인 정대인 부회장의 눈에 들게 된다. SF를 문화적으로 소비·향유하는 연구원들과는 달리, 부회장은 SF의 기능을 미래 예측으로 이해해서 “SF에서 보았을 법한 이런저런 물건들을 현실화시키려고” 한다. 그 결과 “원래 아예 관심 밖이었던 3D 홀로그램과 증강 현실 장치 연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기초 뇌과학 및 신경과학 연구소에도 투자가 시작되었다.”²³⁾

하지만 심너울 소설의 과학자들은 항상 불안한(anxiety) 주체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과학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본과 권력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대서사의 장으로 휩쓸려 들어가며, 의도하지 않은 거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SF 클럽의 연구원들이 그랬듯, 그 결실로부터는 항상 소외된다.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자본과 기업뿐이다.

‘나’의 취중 실언으로 인해 SF 클럽은 해체되고 멤버들은 해고·좌천되어 흩어지지만, 이들이 불러일으킨 효과는 거대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부회장이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이 오스쿠스가 노리는 새 시장임을 선언”하고, “오스쿠스 바이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를 선포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10만 평에 다다르는 뉴로바이오 연구단지를 세우기로 약속”²⁴⁾한 것이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SF의 과학’을 ‘현실의 과학’으로 만들어내는 거대 자본과 재벌기업의 위력이다. 여기에 한 주체로서 과학자의 의도나 의지가 개입될 틈은 없다. “우리는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었다”²⁵⁾라는 서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서사학적으로 이 소설은 ‘이야기가 경계를 넘어 현실이 된다’라는 유서

23) 심너울, 앞의 글, 49쪽.

24) 심너울, 앞의 글, 61-62쪽.

25) 심너울, 앞의 글, 56쪽.

깊은 플롯을 차용하고 있다. 심너울은 과학소설의 ‘과학’과 현실의 ‘과학’ 사이의 유비(analogy)를 흥미롭게 활용한다. 정대인 부회장처럼 과학의 발달에 따라 도래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SF에 대한 중대한 오해 중 하나다. 세릴 빈트에 따르면 SF의 과학적 설정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서 차이를 불러일으킬 촉매제로 작용할, 텍스트의 세계에 도입된 새로움”²⁶⁾, 즉 인지적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노뭉(novum)’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SF의 과학이 현실의 과학과 완전히 별개의 지식체계인 것도 아니다.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SF 클럽 멤버들은 SF 작가이기도 한 김강건 연구원을 중심으로 SF의 과학을 현실의 과학으로 ‘번역’하여 비전공자인 정대인 부회장에게 전달한다. 두 과학 사이에는 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공통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과학과 과학, 과학과 (비)과학 사이의 관계라는 주제는 같은 소설집에 수록된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의 통섭에 대해서>, <한 터럭만이라도>와 같은 작품에서도 변주된다.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의 통섭에 대하여>의 서두에서 컴퓨터공학과 2학년생 유원탁은 일주일에 네 번 휘귀를 사 먹을 수 있는 “쉽고 빠른 수입을 원”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던져주는 공모전들에 수많은 계획서를 제출”²⁷⁾한다. 그가 작성한 기획서 중 하나가 초등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인공지능 대화봇 ‘깊은벳’이었고, 그것이 “창조미래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통섭기술 융합대공모전에 대상을 수상”²⁸⁾하게 된다. 그리고 1년 뒤, 이 기획이 현실화하여 경상남도 남해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분교에서 ‘깊은벳0.7’ 버전의 시범 운용이 시작된다.

이 학교의 유일한 학생인 유림은 눈(eyes)같이 보이는 카메라 렌즈와 발

26)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옮김, 아르페, 2019, 67쪽.

27) 심너울,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의 통섭에 대하여』, 앞의 책, 97쪽.

28) 심너울, 위의 글, 98쪽.

성기관을 대신하는 스피커, 그리고 연산장치가 달린 로봇 형태의 ‘깊은벧 0.7’에게 ‘튜비’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친구로 대한다. 문제는 ‘깊은벧0.7’이 수학, 과학, 사회 수업에서 연산 능력과 웹 검색을 통해 교사인 승현보다 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 오늘 단원은 지구와 달 비교하기예요. 저번에 우리 지구가 둥글다는 건 했었지? 그럼 이제 달의 크기랑 지구의 크기 이런 걸 비교하는 걸 알아볼 거야.”

그때 튜비가 그 특유의 찰칵대는 소리를 또 냈다.

“달의 적도 지름은 3,476.2킬로미터로 지구의 0.273배예요. 또 이심률은 0.0554이고, 지구를 27,32166155일마다 돌지요. 삭망 주기는 29.530588일이고, 지구를 평균 초속 1.022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아요. 달의 탈출 속도는 초속 2.38킬로미터이고, 표면 온도는 평균 250켈빈이에요. 대기는 극히 희박하지만, 헬륨, 네온, 수소, 아르곤과 미량의 메테인이 있어요. 한국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²⁹⁾

‘창조미래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통섭기술 융합대공모전’이라는 거창한 수사, 그리고 튜비가 제공한 ‘과학적 정보’는 모두 우스꽝스러운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이 소설이 과학을 재현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 ‘깊은벧0.7’로 표상되는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을 유지·재생산하는 공모전과 같은 제도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이다. ‘깊은벧0.7’의 기술설명서를 본 초등학교 교사 승현과 혜린은 “한글로 쓰여 있긴 했지만 해독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느끼며, “한글과 한국어는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교훈을 얻”기도 한다.

29) 심너울, 앞의 글, 123쪽.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의 언어가 일상어와 완전히 다르다고 해서, 두 세계(과학과 일상)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작중에서 승현은 ‘깊은벧0.7’에 의해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학생 앞에서 울음을 터트린다. 이 장면은 희화화되어 있지만, 과학에 의해 압도되는 일상의 면모를 극적으로 재현한다. <SF 클럽의 우리 부회장님>에서와 마찬가지로, ‘깊은벧 0.7’이라는 테크놀로지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도를 통해 일상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효과이다.

<한 터럭만이라도>의 ‘나’는 동물행동학 연구자이다. “석사논문이란 이름의 불쏘시개를 30부 생산한 뒤, 막 졸업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비틀대고 있었”³⁰⁾던 나는 한적한 시 외곽을 걷다가 우연히 유기 동물 보호소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회색앵무 ‘티렉스’를 만난다. 유튜브에 올려진 티렉스의 영상은 큰 인기를 끌고, 그 덕분에 ‘나’는 한 동물행동학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작중에서 동물행동학 박사인 ‘나’는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할 처지에 놓인 티렉스를 입양한 것, 즉 윤리적 선택을 한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자 행위’이다. 한편 지능을 가진 존재가 제공에 동의한 세포를 이용해 ‘윤리적으로’ 만든 배양육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식품기업 ‘그린 플레이버’는 ‘나’를 설득해 티렉스의 세포를 채취하려 한다. 이 소설은 이러한 배양육 기술이 어떤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지, 배양육이 상용화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서술하는 데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만, <컴퓨터공학과 교육학의 통섭에 대해서>의 과장된 과학적 수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에서 배양육 기술은 노뿔으로 가장한 맥거핀에 가깝다.

30) 심너울, 『한 터럭만이라도』, 앞의 책, 225쪽.

티렉스가 평범한 앵무새였다면 동물행동학자인 ‘나’의 연구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지능과 대화 능력을 갖춘 티렉스는 곧 사실상의 가족이 된다. 더구나 티렉스가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스스로 돈을 벌고, ‘나’는 덕분에 연구소에 취업까지 했다는 점에서 티렉스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인간과 앵무새로 이루어진 이 가족의 가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체와 대상의 역전이 일어난다. 결말에서 자신을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소유물로 대했던 ‘나’의 태도를 준엄하게 꾸짖는 티렉스는 소설의 캐릭터라 기보단 ‘나’의 초자아일 것이다. 이 소설이 진짜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과학연구 수행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타자를 향한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제는 과학자로서의 커리어에 집착했던 엄마와 이로 인해 상처 받은 자식의 이야기를 다룬 『이런, 우리 엄마가 우주선을 유괴했어요』(위즈덤하우스, 2023)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심너울 소설을 SF답게 만드는 요소는 과학기술적 전문성도, 미래 예측과 외삽도, 과학의 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알고리도 아니다. 심너울은 어디까지나 ‘과학 외부’, 즉 일반 사회의 시선으로 과학을 재현한다. 과학, 과학연구, 과학자에 대한 그의 재현은 철저하게 밈(meme)화 되어 있다.

밈은 본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도킨스는 밈을 문화적 전파의 한 형태이자 사람들이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사고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즉, 생물이 DNA를 복제하여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밈은 한 문화 안에서 아이디어, 행위, 관행, 상징, 스타일을 전파하는 ‘문화적 유전자’로 기능하는 것이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심너울이 과학자 표상을 다루는 방식은 과학자들의 주체성이

31)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No. 2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6, 219쪽.

나 사명감, 과학연구에 대한 의지와는 무관하며, 과학자들이 놓여 있는 현실적 환경에 대한 직접적 고발이나 비판도 아니다. 희화화되고 밈화된 과학자 표상에는 '신화적 과학자' 표상 뒤편에 존재하는, 과학자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인식이 투사되어 있다. 1장에서 언급했듯 자본-국가-기업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대서사의 장에서 주체성 없는 타율적인 기능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과학계가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연결된 사회의 일부로 존재하면서도 전문 용어로 표상되는 폐쇄성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재현의 전략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심너울이 소설 곳곳에서 제시하듯, 과학자들과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놓인 현실의 모순은 계 외부의 시선으로 관측될 때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과학자의 현실을 개별자들, 근대소설의 주체들, 문제적 개인의 이야기로 재현하려면 개인의 열망, 성취, 노력, 좌절, 극복과 같은 낯고 강력한 신화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화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철저하게 밈화된 과학자 표상만을 다루는 심너울의 서사 전략은 과학자를 둘러싼 가장 강력한 신화들을 해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4. 소외와 자기포식 : 정보라 소설의 과학자 재현

정보라 소설의 과학(자) 재현은 기본적으로 알레고리에 가깝다. 정보라는 <영생불사연구소>에서 연구소라는 제도에 내재된 권위주의와 비합리성을 냉소적으로 재현한다.

우리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나 하면 제목에 쓴 그대로 영생불사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한일강제병합 얼마 후인 1912년에 “나라가 망해도 우리만은 영생불사”라는, 일말의 진실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유지찬란해 보이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설립되어 올해 98주년을 맞이한 관계로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다.³²⁾

작중에서 ‘영생불사연구소’는 대형 제약회사의 부설 연구소로, “영생불사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이라고 서술된다. 이러한 정보만 놓고 보면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 같지만, 실상 그러한 묘사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소설이 재현하는 것은 연구소의 기능이 아니라 연구소라는 제도 그 자체다.

영생불사연구소 소속 말단 연구원이자 서술자인 ‘나’는 연구소 개소 98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영화배우 ㅂ씨를 섭외해 오는 것”³³⁾이다. ㅂ씨가 불로장생에 대한 영화를 한 편 찍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구원의 본분인 과학연구와 무관한 일이지만, 연구소라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든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회사 업무도 아니고 연구 실적도 아니고 난데없이 무슨 영화배우 매니저라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따위의 이유로 허무하게 전격 잘려버리면 앞날이 막막한 건 둘째치고 억울해서 어떡하냐 말이다”³⁴⁾라는 서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나’에게는 행사 초청장과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주어진다. “초청장이나 포스터는 외부에도 배포되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데다 종이에 찍힌 글자가 물증으로 남으니 잘 만들어봤자 본전이고 뭐 하나라도 틀어

32) 정보라, 『영생불사연구소』, 『그녀를 만나다』, 아작, 2021, 10쪽.

33) 정보라, 위의 글, 11쪽.

34) 정보라, 위의 글, 14-15쪽.

졌다가는 그야말로 개망신이 되는 꼴치 아픈 작업이더라는 것이다.”³⁵⁾ 즉, 영화배우 섭외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과학연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아무리 내 본업이 영생불사 연구하는 사람이고 초대의 글이 됐든 초청의 글이 됐든 글 쓰는 건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연구소에 직원으로 이름 걸고 월급 받아먹고 사는 입장이니 시키는 건 다 해야 한다”³⁶⁾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작중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연구가 아니라 연구자로 존재하기 위해 수행해야만 하는 가외 노동들이다.

기념식 장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섭외된 영화배우 ㅂ씨를 비롯, 현직 국회의원, 국민 모두가 영생불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이 초청한 미녀 특강 강사, 강사를 스토킹하는 전 남 자친구 등이 등장해 한바탕 난장이 펼쳐진다. 이 장면은 유머러스하게 묘사되지만, 과학연구가 정치, 기업자본과 맺고 있는 관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과학연구자가 과학연구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잡일’로 표상되는 가외 노동, 그림자 노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정치권력 및 기업자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1장에서 서술했듯, 과학자의 독학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나라가 망해도 과학만은 영생불사’ 하기 위해 거대 자본과 기업 카르텔에 (자발적으로) 종속되는 현실을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계가 생계와 연결될 때는 더더욱 안정적으로 느껴지겠지. 그러나 연구소 로비에 잠시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일하러 올라가기 전에 나는 어쩐지 무섭고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 살아 있

35) 정보라, 앞의 글, 22쪽.

36) 정보라, 위의 글, 23-24쪽.

는 한 언제까지나 지고 가야 할 먹고사는 걱정, 밥줄에 대한 집착이 무섭고, 그 집착이 앞으로 198주년, 298주년, 398주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그리하여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연구소라는 곳에 발목 잡힌 채 끝없이 허덕여야 하리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슬프고 무서웠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영생불사를 하건 안 하건, 자기 생계를 자기 손으로 벌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같은 처지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딱히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³⁷⁾

여기서 정보라는 심너울보다 더 노골적으로 ‘과학적 원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다. ‘나’를 비롯한 영생불사연구소 구성원들이 실제로 영생불사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설정이자 반전 요소이지만, 그 영생불사가 어떠한 과학적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심지어 심너울이 동원했던 현란한 과학적 수사조차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정보라의 서사 전략은 과학자를 다른 모든 생활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인이자 노동자로 재현하는 것이다. 정보라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라는 문제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지식노동의 장인 과학연구/연구자의 세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냉소적으로 재현한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소설이 메타픽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이나 하면 **제목에 쓴 그대로** 영생불사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곳(강조는 인용자)”(11쪽)이라는 서술에서 볼 수 있듯, 이것은 연구원 ‘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서사 바깥에 존재하는 작가 정보라 자신의 이야기이자 과학자,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조리하고 부당한 노동들을 감내해야 하는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이

37) 정보라, 앞의 글, 47쪽.

기도 하다.

같은 소설집에 수록된 <여행의 끝>은 루신의 <고향>³⁸⁾과 <광인일기>를 전유한 작품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해 잡아먹게 만드는 원인 모를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인류를 존속시키기 위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는 '노아의 방주'라는 프로젝트가 실행된다. 이 우주선의 탑승 자격은 비감염자 중에서도 "우주선을 조종할 소수의 우주항공 전문가와 운항 기술자를 제외하면, 의학, 생물학, 화학, 약학 전문가로 한정되었다."³⁹⁾

서술자인 '나'는 이 우주선에서 유일한 비과학자이다. 언어학을 전공해 국방부에서 암호 해독 전문가로 일하던 '나'는 우주선이 외계 문명과 조우했을 때 의사소통을 담당하라는 이유로 우주선에 태워진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우여곡절 끝에 '나'와 기술자 한 명만 살아 남는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기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기술자를 설득해 지구에 다시 착륙한다.

너석을 마저 먹어야겠다.⁴⁰⁾

어느 시점인가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던 서술자는 기술자 동료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포식한다. 이 소설을 알레고리로 바라본다면, 우주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모든 과학자들이 서로를 잡아먹다가 사멸해버리고, 최후의 포식자로서 비과학자인 '나'만이 살아남는다는 스토리를 통해

38) 작중에서 루신의 <고향>에 나오는 "희망이란 본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두 차례 인용된다.

39) 정보라, 「여행의 끝」, 앞의 책, 99쪽.

40) 정보라, 위의 글, 160쪽.

현대 과학의 폐쇄성과 자기포식성을 풍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루신의 <광인일기>가 ‘식인’이라는 장치를 활용해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극도로 부각시켰듯, <여행의 끝>은 ‘좀비 바이러스’라는 장치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어지는’ 과학자들만을 모아놓은 집단에서도 야만성과 폭력성이 얼마든지 발현될 수 있음을 재현한다.

<씨앗>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 창출 논리에 종속된 과학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소설의 캐릭터 중 일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무’들이다. 이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식물의 씨앗이 인간과 융합되어 진화한 생명체이다.

그것은 의외로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결합이었다. 식물과 한 몸이 된 인간은 밤이면 영양이 풍부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잠을 자고 해가 뜨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음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한편 식물은 인간의 팔과 다리를 얻었으므로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쉽사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동물의 방법으로 번식하는 것 외에도 인간은 자기 몸의 식물로 꺾꽂이하거나 씨앗을 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개체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대도시와 다국적 기업과 첨단 기술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조용히 번성했다.⁴¹⁾

다국적 생명공학기업 ‘모셴닉’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싹을 틔울 수도, 자라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된 불구의 식물들”⁴²⁾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식물들은 이내 생존을 위해 인간의 몸에 씨앗을 퍼트리려는 방식으로 진화했고, 그 씨앗을

41) 정보라, 「씨앗」, 앞의 책, 339쪽.

42) 정보라, 위의 글, 338쪽.

받아들여 식물과 융합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나무 인간’이 된 것이다. 이 소설 또한 인간이 식물과 융합하는 과학적 원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설정은 “대도시와 다국적 기업과 첨단 기술”에 의한 자연 지배, 인간 소외를 비판하는 알레고리로서 동원된다,

흥미로운 점은, 나무 인간들을 찾아와 모셴닉 소유의 종자 사용 여부를 따져 묻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똑같은 진회색 정장에 흰 셔츠, 똑같은 검은 구두”를 착용하고, “남녀를 구분할 수 없이 키와 체형과 얼굴이 모두 다 똑같”⁴³⁾은 이 사람들은 “정장 인형”⁴⁴⁾이라고 표현된다. 이러한 외양 묘사는 이들이 다국적 생명공학기업이라는 거대 조직에 속박된 존재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나야만 ‘진짜 인간’, ‘진짜 삶’이 가능하다는 암시이다. 이 소설은 “나무를 품은 자는 풀과 곡물을 보호했고 풀과 곡물을 품은 자는 나무를 신뢰”하는 삶, “모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서로의 아이들을 위한 영양분이 되”⁴⁵⁾는 삶에 대한 지향을 강하게 드러낸다.⁴⁶⁾

이 장에서 살핀 정보라 소설들은 과학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한 장치이자 토대로서 연구기관과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과 제도는 과학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노동자, 직업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연적이지만, 과학자들은 조직의 경직성과 권위주의,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의 노동으로 고통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신화적 과학자 표상에

43) 정보라, 앞의 글, 317쪽.

44) 정보라, 앞의 글, 328쪽.

45) 정보라, 앞의 글, 339쪽.

46) 단, <씨앗>이 보여주는 생태주의적 사유가 완전히 반과학주의적, 테크노포비아적이지 않은 않다. <씨앗>의 나무 인간들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엔트처럼 숲을 가꾸고 수호하는 존재들이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의해 가려짐으로써 그 해결은 영원히 지연된다는 점이다. 샌드라 하딩은 “많은 나쁜 과학 비평가들이 현대 과학의 사회구조와 목적이 과학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탄생된다는 사실을 조사해보려고 하지 않는다”⁴⁷⁾고 지적하였다. 즉, 과학정책을 결정하는 지배집단의 부르주아적, 인종차별적, 제국주의적 성격과 연구와 실험으로 대표되는 과학자들의 일상적 경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라는 ‘노동자로서의 과학자’를 재현함으로써 과학자의 일상과 과학 제도 자체에 편재한 자본, 권력, 지배구조의 문제를 가시화한다. 이러한 재현의 방식이 바로 정보라 소설이 SF로서 과학의 존재론을 겨누는 지점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이 과학자, 과학연구, 과학연구기관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세 작가는 공통적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학이라는 모델과 신화적 과학자 표상을 해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사 전략의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김초엽 소설의 과학자들은 일견 과학을 통한 해방과 자기완성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파우스트적 주체처럼 보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차별받는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전유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투명한 과학’의 은유를 부정하고 여성 과학자라는 구체적인 몸의 경험에 입각한 ‘부분적 시각’의 장르로 SF를 재구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47) 샌드라 하딩, 앞의 책, 105쪽.

반면 심너울 소설은 과학자를 자본-국가-기업의 거대 카르텔에 종속된 부품과 같은 존재로 재현한다. 이는 과학자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인식, 즉 주체성 없는 타율적 기능인이라는 인식을 밎화·희화시켜 다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심너울 소설은 국가, 민족,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엘리트이자 선구자로서의 과학자라는 '신화적 표상'을 조롱하고 해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보라 소설은 과학자의 일상에 편재하는 제도와 자본, 권력의 문제를 알레고리적으로 다룸으로써 과학연구가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정책의 장과 독립되어 완전히 자율적으로 존재한다는 환상에 균열을 가하고, '식인'이라는 장치를 통해 과학의 자기포식성을 드러낸다. 이에 따르면 과학자는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배집단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이며, 과학계의 자율성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과학자들이 겪는 불안과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대 SF가 과학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이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이 시대에 과학(자)의 새로운 존재론과 지향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과학의 오만함과 편협함, 객관성의 신화를 비판하는 것은 SF만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SF는 과학 자체를 극단적으로 상대화하지 않으면서도 해러웨이가 '상황적 지식들'이라고 부른 효과를 만들어낸다. 해러웨이는 기술과학 속 현대의 삶이 내파(implosion)하는 현상을 페미니즘을 통해 이해하려 했다며 “나는 축복도 저주도 하지 않는 대신 우주 전사는 꿈도 꾸지 못할 목표를 아이러니하게 전유하려는 정신, 곧 비판적 정신을 통해 사이보그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⁴⁸⁾고 선언한 바 있다.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이 전유하는 과학자

48) 도나 해러웨이, 「반려종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119쪽.

표상들 또한 SF로서 과학을 서사화하는 전략, 즉 객관성의 은유로서의 과학에 대한 '아이러니한 전유'와 '비판적 정신'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 권소영, 김난주, 남혜성, 박은경, 박인경, 『나는 대한민국의 여성 과학자입니까?』, 와우 라이프, 2018.
- 도나 해러웨이,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 49,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 김애령, 「테크노사이언스의 시대, 페미니스트 과학학의 유산: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들'의 생태론적 의미」, 『탈경계인문학』 Vol. 14, No.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1, 7-29쪽.
- 김윤정, 「김초엽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과 장애」, 『여성문학연구』 Vol. 54,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77-107쪽.
- 김은주, 「어떠한 이야기들이 세계들을 만들고, 어떠한 세계들이 이야기들을 만드는가?: 동시대 페미니즘과 SF의 조우로서 김초엽의 「관내분실」」, 『문화과학』 No. 111, 문화과학사, 2022, 117-133쪽.
- 김주리, 「〈과학소설 비행선〉이 그리는 과학 제국, 제국의 과학-실험실의 미친 과학자들(1)」, 『개신어문연구』 No. 34, 개신어문학회, 2011, 169-196쪽.
- _____, 「1910년대 과학, 기술의 표상과 근대 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No. 39, 한국현대문학학회, 2013, 41-73쪽.
-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허블, 2019.
- _____,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 류수연, 「실험실과 상상된 과학-이광수의 「개척자」 연구」, 『비교한국학』 Vol. 27, No. 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61-89쪽.
-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옮김, 나남, 2009.
-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옮김, 아르떼, 2019.
- 심너울,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아작, 2020.
- _____, 『이런, 우리 엄마가 우주선을 유괴했어요』, 위즈덤하우스, 2023.

- 양윤의·차미령, 「김초엽의 SF에 나타난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 『비교한국학』 Vol. 30, No. 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197-226쪽.
- 윤애경, 「한국 SF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자유의지와 젠더 수행성」, 『國際言文學』 No. 53, 국제언어문학회, 2022, 81-106쪽.
- 정보라, 『그녀를 만나다』, 아작, 2021.
-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No. 2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6, 215-234쪽.
-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옮김, 포도밭출판사, 2020.
- 최애순, 「초창기 과학소설의 두 갈래 양상-『철세계』와 『비행선』」, 『우리어문연구』 Vol. 68, 우리어문학회, 2020, 131-170쪽.
- _____, 「대한제국 말기와 대한제국 말기와 식민지시기 발명·발견 소재 소설의 행보-일본 유학생 집단 지식인의 ‘발명’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 『현대소설연구』 No. 91,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87-133쪽.
- 최일섭, 「트랜스휴머니즘의 증강 비전과 소수자의 역습-김초엽 SF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No. 6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 141-181쪽.
- 홍성욱,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7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55-81쪽.
- 황종연, 「신 없는 자연-초기 이광수 문학에서의 과학」, 『상허학보』 Vol. 36, 상허학회, 2012, 143-182쪽.

Abstract

Representations of Scientists in Contemporary Korean Science
Fiction
- Centered on the novels of Kim Cho-yeop, Shim Nae-ul, and
Jung Bo-ra

Hong, Duck Gu(POSTECH)

Science fiction is a genre that deals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o it's only natural that it's interested in the way science and technology exist and are implemented in the real world. Scientific researchers and scientific research organizations are common subjects in contemporary Korean science fic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presentation of scientists in the science fiction novels of Kim, Cho-yeop(김초엽), Shim, Nae-ul(심너울), and Jung, Bo-ra(정보라), and to analyze the ways in which contemporary Korean science fiction deconstructs the mythical representation of scientists and the illusion of scientific objectivity.

Kim Cho-yeop, a well-known writer with a background in science and technology, frequently features female scientists in her novels. The female scientists in Kim Cho-yeop's novels are both the cause and the solution of events, and they are also confident subjects who do not doubt the possibility of self-perfection and solidarity through science.

On the other hand, the scientific researchers/scientists in Shim, Nae-ul's novels are swept unwittingly into a mega-narrative in which dominated by the logic of capital and power, and in the process, they creates huge unintended effects. Shim, Nae-ul memeizes this always anxious aspect of the scientist's existence.

In the case of Jung, Bo-ra's novels, it cynically recreates the problem of Marx's 'alienation of man by man', which is repeated in the world of science, the most sophisticated artisan of knowledge labor, even in late

한국 현대 SF의 과학자 재현양상 - 김초엽, 심너울, 정보라 소설을 중심으로 / 홍덕구 103

capitalist societies.

**(Keywords: Science Fiction, Representations of Scientists, Kim Cho-yeop,
Shim Nae-ul, Jung Bo-ra)**

■ 논문투고일 : 2023년 9월 20일
■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7일
■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21일